

GIST 평의원회 초대 의장에 환경·에너지공학부 송철한 교수 선출

- 10월 7일, 평의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정기회의 개최... 교원 5명, 연구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등 내부 평의원 11명과 외부 평의원 1명, 총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
- 송철한 초대 의장, "학내 다양한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 구성원의 복리와 기관 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평의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



▲ GIST가 10월 7일(월) 오전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평의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우측 사진) 평의원회 초대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환경·에너지공학부 송철한 교수(위), 고등광기술연구소 기철식 수석연구원(아래)

교원·연구원·직원·학생 등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의 모든 구성단위 대표들이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인 GIST 평의원회의 초대 의장에 **환경·에너지공학부 송철한(59) 교수**가 선출됐다.

GIST 평의원회는 10월 7일(월) 오전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송 교수를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는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2004년 GIST에 부임해 만 20년 동안 기후·대기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에 힘써온 송 교수는 **지구·환경모델링센터장**으로서 **BK21 PLUS 환경공학 융합형 인재양성 사업 단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단장을 맡고 있다.

송 교수는 "GIST 평의원회는 학교를 이루는 모든 구성단위 대표들이 모여 서로 예의를 갖추고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이성과 논리에 입각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민주적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학내 다양한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 구성원의 복리와 기관 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평의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IST 평의원회의 **초대 부의장에는 연구원 대표 평의원인 고등광기술연구소 기철식 수석연구원이 선출됐다.**

평의원회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 기철식 수석연구원은 "평의원회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경영진에 전달이 되는 창구가 되어 **학교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 평의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임기철 총장과 김상돈 교학부총장, 김희삼 기획처장 등 경영진과 9명의 평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GIST 평의원회는 **교원 5명, 연구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등 내부 평의원 11명과 외부 평의원 1명 등 총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규정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원·연구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교원·연구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교원·연구원·직원 평의원 선거를 통해 9명의 내부 평의원을 선출했으며,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평의원으로는 GIST 학사과정 1기 졸업생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GIST에서 받은 **전남대 석영웅 교수(생물공학과)가 위촉됐다.**

학생의 경우, **대학원 총학생회장인 하태일(AI대학원) 씨와 학사과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양태규(신소재공학부) 씨가 학생단체 대표로서 평의원을 맡게 됐다.**

임기철 총장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이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힘이 GIST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평의원회의 헌신과 노력이 큰 힘이 되길 바라며, 평의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